

기술분석보고서 IT

위지트(03609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박진희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4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지트(036090)

정밀가공·표면처리·재생기술 기반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모성 장비부품 전문기업

기업정보(2026.10.01 기준)

대표자	오흥식
설립일자	1997년 2월 4일
상장일자	1999년 12월 10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디스플레이
주요제품	제조장비 부품,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시세정보(2026.10.01 기준)

현재가(원)	1,402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577
발행주식수	42,550,514주
52주 최고가(원)	2,775
52주 최저가(원)	980
외국인지분율	0.68%
주요주주	(주)제이에스아이홀딩스 외 4인

정밀가공·표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영역 확대 중

위지트(이하, ‘동사’)는 19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용 정밀부품 기업으로, 상·하부전극, 서셉터, 디퓨저, 노광기척, 마스크 프레임, 샤워헤드 및 식각용 진공 챔버 등을 생산하고 있다. 동사는 정밀가공, 양극산화, 용사, 용접 및 세정공정을 수행하며, 신규 부품 공급과 소모성 부품의 교체·수리·재생 수요를 통해 매출을 창출한다. 동사는 정밀가공과 표면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부품 기반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부품의 품목과 고객을 확대하고 있다.

OLED 전환과 교체-재생 수요가 시장 성장 견인, 투자 변동성 존재

동사의 목표시장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증착·식각·노광공정에 사용되며 교체·세정·재코팅 수요가 발생하는 소모성 정밀부품 시장으로, 신규 생산라인의 장비 반입과 기존 라인의 가동·정비가 수요를 형성한다. 시장은 고객별 주문생산과 장기간의 양산 검증을 특징으로 하며, 정밀가공·표면처리·세정기술과 품질 재현성이 주요 진입장벽이다. 전방산업에서는 LCD 중심에서 OLED 중심으로 제품구성이 전환되고 있고, 국내 실증·국산화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OLED·반도체용 정밀부품의 기술 및 생산 기반을 고도화

동사는 기존 사업구조를 유지하며 OLED·반도체용 고부가 부품 개발과 생산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고밀도 용사·봉공처리를 적용한 OLED 식각장비용 상부전극 개발, 플라즈마 보호피막 세정기술의 특허 등록 및 스마트공장 인증을 통해 표면처리·재생기술과 공정관리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무상감자와 최대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통해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일부 계열 지분을 재배치하였다. 향후 디스플레이 부문은 기존 생산라인의 교체·재생 수요와 8.6세대 정보기술용 OLED 투자가, 반도체 부문은 인공지능·고성능 메모리 투자와 낸드플래시 적층 고도화가 성장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352.3	0.0	36.5	10.4	-240.6	-68.3	-18.8	-11.5	40.0	-685	3,011	N/A	0.8
2024	3,574.4	914.5	138.2	3.9	128.8	3.6	5.9	3.0	67.5	185	3,290	11.0	0.6
2025	4,830.3	35.1	258.4	5.3	239.6	5.0	5.7	3.7	67.4	197	3,709	9.0	0.5

기업경쟁력

가공부터 재생까지 연결된 일관 생산체계	• 대형 알루미늄 부품의 정밀가공부터 양극산화, 용사, 용접, 세정 및 재코팅까지 주요 공정을 연계함으로써 고객별 장비 사양에 맞춘 신규 부품 제작과 사용 부품의 성능 복원에 함께 대응
고객 공정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체계	• 제품설계와 표면처리 개발 기능을 갖춘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파티클 발생, 부식, 가스-온도 불균일 및 부품 수명 저하 등 실제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응용기술 개발
반복생산을 뒷받침하는 품질·생산관리 기반	• 장비부품의 구조와 표면처리 관련 지식재산권을 축적하고 품질·환경·안전경영시스템 및 스마트공장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요구되는 품질 재현성과 공정관리 수준 확보 기반 구축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대형 정밀가공 및 가스분배 제어 기술	• 대형 알루미늄판에 수천에서 수만 개의 미세홀을 일정하게 가공하고 평면도와 홀 배열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기술을 상부전극, 디퓨저 및 샤워헤드에 적용해 공정가스와 플라즈마가 기판 전면에 고르게 전달
고내구 표면처리 및 부품 재생기술	• 양극산화, 고밀도 용사, 봉공처리, 정밀세정 및 연마기술을 전극·챔버·백킹플레이트 등에 적용해 부식·파티클·아킹 발생을 줄이고, 성능이 저하된 부품의 표면을 복원해 재사용
기판 온도·지지 균일성 제어 기술	• 가열·냉각구조와 기판 지지·분리구조를 결합한 서셉터 기술을 통해 대형 기판의 중앙부와 가장자리 사이의 온도 편차와 비증착 구간을 줄여 막 두께와 공정 품질의 균일성 향상

시장경쟁력

교체·재생 수요에 기반한 반복 매출 구조	• 상부전극, 디퓨저 및 서셉터 등은 가동 과정에서 표면 마모와 성능 저하가 발생하므로 신규 설비투자 외 기존 생산라인에서 교체·세정·재양극산화 및 재코팅 수요 지속 발생
디스플레이에서 OLED·반도체로 적용시장 확장성	•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축적한 정밀가공과 표면처리 기술을 OLED용 상부전극과 고단 적층 반도체용 샤워헤드·챔버 부품으로 확장할 수 있어 전방산업 변화에 대응 가능
장기 인증에 따른 공급관계 유지 가능성	• 장비부품은 장기간의 품질시험과 양산 검증을 거쳐야 하고 불량 발생 시 생산수율과 가동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인증을 완료한 공급업체는 거래 지속성 형성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 대형 정밀가공, 표면처리, 온도제어 및 재생기술은 장비부품의 공정 균일성·내구성·수명을 높이고 신규 제작과 유지·보수 수요에 함께 대응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희소성(Rarity) • 정밀가공부터 양극산화, 용사, 용접, 세정 및 재코팅까지 연계하는 생산체계는 일정한 차별화 요소이나, 높은 희소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모방가능성(Imitability) • 생산설비와 특허는 개별적으로 모방하거나 대체할 수 있지만, 장기간 축적된 공정조건별 노하우와 고객 인증·양산 이력은 단기간에 재현하기 어려운 요소로 판단된다.	 조직(Organization) • 기술연구소, 일관 생산 설비, 품질·환경·안전경영 시스템 및 스마트공장 체계를 통해 보유기술을 개발·생산·품질관리로 연결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	---	--	--

I. 기업 현황

정밀가공·표면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영역 확대 중인 소모성 정밀부품 전문기업

동사는 19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용 정밀부품 기업으로, 상·하부전극, 서셉터, 디퓨저, 노광기 척, 마스크 프레임, 샤워헤드 및 식각용 진공 챔버 등을 생산하고 있다. 동사는 정밀가공, 양극산화, 용사, 용접 및 세정공정을 수행하며, 신규 부품 공급과 소모성 부품의 교체·수리·재생 수요를 통해 매출을 창출한다. 연결 기준으로 종속회사 파워넷을 통해 전원공급장치와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직판과 현지 대리점을 활용한 수출 방식으로 판매하며, 고객사의 인증을 거쳐 거래계약을 체결 후 수시 발주에 대응하는 주문생산 구조이다. 동사는 정밀가공과 표면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부품 기반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부품의 품목과 고객을 확대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1997년 설립되어 1999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용 정밀부품 기업이다. 동사는 1997년 디스플레이 식각공정에 사용되는 상부전극을 국산화한 이후 증착, 노광 및 식각공정에 적용되는 부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하였다. 주요 제품은 상·하부전극, 서셉터, 디퓨저, 노광기 척, 마스크 프레임, 샤워헤드 및 식각용 진공 챔버 등이며, 고온·진공·플라즈마·부식성 가스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 내부 부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의 수익구조는 신규 장비에 장착되는 정밀부품의 제작뿐 아니라 공정 중 마모되는 소모성 부품의 교체 및 재생 수요에 기반한다. 상부전극, 하부전극, 서셉터 및 디퓨저 등은 공정 중 마모되는 소모성 부품으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교체하거나 수리·재양극산화 등의 재생공정을 거쳐 수회 재사용할 수 있어 신규 공급과 유지·보수 수요가 함께 발생한다.

인천 본사와 경기도 안산 소재 공장에서 생산하며, 정밀가공, 양극산화, 용사, 용접 및 세정공정을 포함한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고객별 장비 사양과 공정 조건에 맞추는 주문생산 방식이므로 표준화된 생산능력을 산정하기 어렵다. 주요 고객군은 국내외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 반도체 소자 제조사 및 제조장비 업체이며, 별도 재무제표 기준 내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수출은 현지 대리점을 활용하고 있다.

핵심 경쟁력은 대형 알루미늄 부품의 정밀가공과 고내식·고내전압 표면처리를 결합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이다. 수만 개의 미세 홀과 높은 평면 정밀도가 요구되는 가스 분사 부품, 플라즈마 환경에서 파티클과 아킹 발생을 억제해야 하는 전극류, 공정온도와 기관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서셉터 등은 가공·코팅·세정 능력을 함께 요구한다. 다만 고객별 품질 인증과 장기간의 양산 검증이 필요한 사업 특성상 신제품의 매출 전환 속도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동사는 디스플레이 중심의 사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부품의 품목과 고객을 확대하고,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 공정용 고밀도 용사 및 세정기술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년도	내용
1997.02	법인 설립
1997.09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999.12	코스닥 시장 상장
2002.09	대통령상 표창(반도체 및 LCD 설비 국산화)
2015.06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중소기업청)
2024.02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재선정(산업통상자원부)
2024.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재지정(산업통상자원부)
2025.06	환경관리 우수기업 재지정(인천광역시)
2025.07	스마트공장 인증(중소벤처기업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홈페이지,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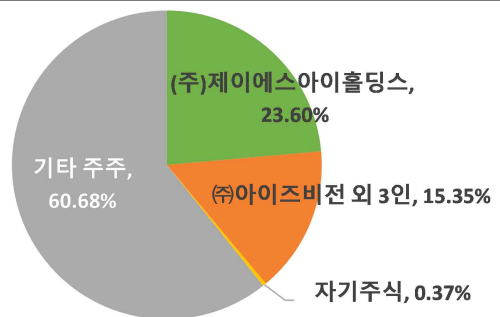
■ 주주 현황

2026년 6월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주)제이에스아이홀딩스로, 전체 발행주식(42,550,514주) 중 10,040,093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통주 지분의 23.60%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주)아이즈비전 외 3인의 특수관계자가 6,530,966주(15.35%)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을 합계는 38.95%이다. 한편, 동사는 자기주식 156,821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25,822,634주(60.68%)는 기타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2026년 5월 3대 1 무상감자를 실시한 후 같은 해 6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함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증가하였다. 최대주주 측 지분 확대는 경영권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제3자배정 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이 수반됐다는 점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대주주 측이 의미 있는 경영권 지분을 확보한 가운데 일반주주의 유통 지분도 높은 구조이다. 이에 따라 지배력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주식 소유는 다수 일반주주에게 폭넓게 분산되어 있으며, 향후 자본거래나 관계회사 간 거래가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2] 동사의 주요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관계
(주)제이에스아이홀딩스	10,040,093	23.60%	최대주주
(주)아이즈비전 외 3인	6,530,966	15.35%	특수관계인
자기주식	156,821	0.37%	
기타 주주	25,822,634	60.68%	
합계	42,550,514	100.00%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영역

동사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사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용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단일 사업부문으로 구성된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2026년 상반기 별도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며, 액정표시장치와 OLED 패널의 식각·증착·노광공정에 사용되는 상·하부전극, 서셉터, 디퓨저, 노광기 척 및 마스크 프레임 등을 공급한다. 공정 중 지속적으로 플라즈마와 화학가스에 노출되는 부품이 많아 신규 제품 판매와 함께 교체·재생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반도체 부문은 2026년 상반기 별도 매출의 35%를 구성하는 성장 사업이다. 주요 제품은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화학기상증착) 공정에서 가스를 균일하게 분사하는 샤워헤드와 식각공정용 진공 챔버 등이다. 특히 고단 적층형 3차원 낸드플래시 공정용 샤워헤드는 홀 배열, 평면도, 정밀 용접, 열처리 및 세정 수준이 증착 균일도와 파티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 부문은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축적한 대형 정밀가공과 표면처리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간 기술적 연관성이 높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주요 종속회사인 파워넷을 통해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스위칭 모드 전원공급장치) 사업을 보유하고 있다. 파워넷은 디스플레이 기기, 음향기기, 프린터, 생활가전 및 산업용 전자제품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력변환장치를 개발·생산한다. 파워넷과 그 종속기업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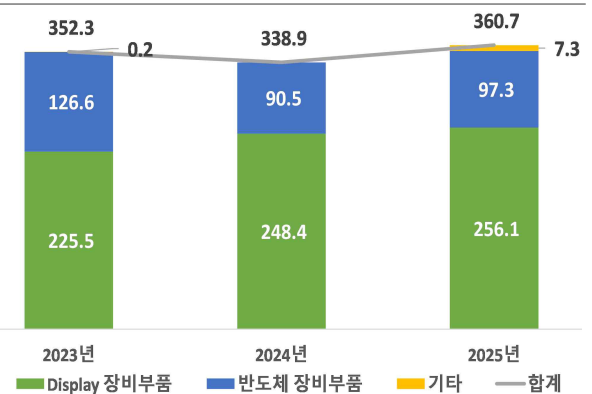
단말기 및 식품 유통 등으로 연결 사업범위가 확대되어 있으나, 동사 별도의 제조사업과 직접적인 생산·판매 연계는 제한적이다.

동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별도 기준으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부품에 집중되어 있고, 연결 기준으로는 전원공급장치와 정보통신 관련 사업이 추가된다. 핵심 제조역량은 정밀가공과 표면처리 기술을 공유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디스플레이 매출 기반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부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사업 안정성과 성장성 확보에 중요하다. 연결 종속회사의 사업 다각화는 외형 확대 요인이지만, 제조부품 사업과 성격이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연결 실적과 자금 흐름의 복잡성이 높아질 수 있다.

[표 3] 동사의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구분	2023년	비중	2024년	비중	2025년	비중
디스플레이 장비부품	225.5	64.0%	248.4	73.3%	256.1	71.0%
반도체 장비부품	126.6	35.9%	90.5	26.7%	97.3	27.0%
기타	0.2	0.1%	-	0.0%	7.3	2.0%
매출 합계	352.3	100.0%	338.9	100.0%	360.7	1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동사의 판매는 영업부서가 수요처와 직접 접촉하는 기술영업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국내 판매는 동사와 최종 수요자 간 직판 구조이며, 수출은 현지 대리점을 활용하되 판매경로는 직판 방식으로 분류된다. 주요 수요처는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 반도체 소자 제조사와 관련 제조장비 업체로 구성되며, 제품의 사양과 표면처리 조건을 고객 공정에 맞추는 주문제작 방식이 적용된다.

고객사는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공 정밀도와 코팅 성능뿐 아니라 품질관리, 생산관리, 납기 대응력 및 재무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신규 부품이 양산라인에 적용되기까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품질인증과 공정 테스트가 필요하며, 부품 불량이 생산수율 저하나 생산라인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존 공급업체를 쉽게 변경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는 인증을 완료한 공급업체에 거래 지속성을 제공하지만, 신규 고객이나 신규 장비 진입에는 장기간의 검증비용이 발생한다.

연간 확정물량을 일괄 수주하기보다 고객사와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생산계획과 부품 교체주기에 따라 수시로 발주받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수주잔고만으로 중장기 매출을 예측하기 어렵고, 고객사의 설비 가동률과 정비계획이 단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 동사의 경쟁전략은 정밀가공, 양극산화, 용사, 용접 및 세정공정의 내재화와 고객별 사양 대응을 통해 공급업체 인증을 확보한 후 신규 제작과 재생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주요 원재료가 알루미늄인 만큼 국제 알루미늄 가격과 환율 변동은 제조원가와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문생산 특성상 제품별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협상력과 공정 수율 개선이 수익성 관리의 주요 요소로 판단된다.

II. 시장 동향

OLED 전환과 교체·재생 수요가 성장을 견인하나 투자 변동성과 글로벌 경쟁이 병존하는 시장

동사의 목표시장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증착·식각·노광공정에 사용되며 교체·세정·재코팅 수요가 발생하는 소모성 정밀부품 시장으로, 신규 생산라인의 장비 반입과 기존 라인의 가동·정비가 수요를 형성한다. 시장은 고객별 주문생산과 장기간의 양산 검증을 특징으로 하며, 정밀가공·표면처리·세정기술과 품질 재현성이 주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전방산업에서는 LCD 중심에서 OLED 중심으로 제품구성이 전환되고 있고, 국내 실증·국산화 지원 확대에 따라 대면적 가공, 고내구성 코팅 및 파티클 저감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사에는 기존 생산라인의 교체·재생 수요와 OLED 공정용 부품 확대가 기회요인이지만, 장비투자의 순환성, 국내 패널업체의 시장점유율 하락, 중국 업체와의 경쟁, 고객 인증 부담 및 원재료 가격 변동은 주요 위험요인으로 판단된다.

■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장비 소모성 정밀부품 시장의 특성

동사의 목표시장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장비의 소모성 정밀부품 시장으로, 액정표시장치와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의 증착·식각·노광공정에서 기판을 지지·가열하거나 공정가스를 분사하고, 플라즈마를 발생·제어하는 전극, 서셉터, 디퓨저, 척, 마스크 프레임 등이 포함된다.

수요는 신규 설비투자에 따른 초도 수요와 가동 중인 생산라인의 교체·재생 수요로 구분된다. 초도 장착 수요는 패널 제조사의 신규 라인 투자와 장비업체의 수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교체·재생 수요는 기존 생산라인의 가동률, 부품 수명, 공정 강도 및 정비주기에 좌우된다. 따라서 신규 장비시장의 투자 변동성이 크더라도 가동 중인 생산기반이 유지되는 동안 일정한 후속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패널 생산량 감소나 생산라인 폐쇄가 장기화되면 교체 수요도 함께 축소되므로 완성 장비시장과 완전히 독립된 시장은 아니다.

관련하여 국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부품 출하액은 2023년 6,397억 원에서 연평균 8.89%로 성장하여 2028년 9,79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투자액은 2025년 67.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6년에는 정보기술용 OLED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확대로 전년 대비 53% 증가한 103.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진입장벽은 정밀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및 세정기술과 전용 생산설비에 필요한 초기투자에서 형성된다. 장비 내부 부품의 홀 가공 정밀도, 평면도, 가스 분사 균일성, 내식성, 절연성 및 파티클 발생 수준은 패널의 품질과 생산수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객사는 공급업체 변경에 신중한 편이다. 신규 부품은 고객별 공정조건에서 장기간의 품질시험과 양산 검증을 거쳐야 하며, 인증 이후에도 동일한 품질을 반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공정관리와 납기 대응력이 요구된다. 이는 검증된 공급업체의 거래 지속성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신규 고객 진입과 제품 전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확대한다.

한편, 보조 목표시장은 반도체 증착·식각공정 장비 내부에서 사용되는 샤워헤드, 전극 및 진공 챔버 등 소모성 정밀부품 시장으로 정의된다. 이들 부품은 고온·진공·플라즈마와 부식성 가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므로 일정 기간 사용 후 교체·세정·재코팅 수요가 발생하며, 신규 장비투자뿐 아니라 기존 생산라인의 가동률과 정비주기가 시장수요를 좌우한다. 부품의 미세홀 가공, 평면도, 가스 분사 균일성, 내식성 및 파티클 억제 성능이 반도체 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비업체와 반도체 제조사의 장기 품질인증이 요구되고 공급업체 변경도 제한적인 편이다. 이에 따라 가격보다 정밀가공·표면처리 역량, 반복적인 품질 재현성과 납기 대응력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집약적 시장으로 판단된다.

■ 핵심 트렌드 및 시사점

세계 디스플레이 장비시장은 패널업체의 대규모 투자시점에 따라 등락하는 순환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세계 시장규모는 2025년 9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6% 증가한 후 2028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2029년에는 73.1억 달러로 26.4% 반등하지만 2030년에 69.5억 달러로 다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목표시장을 신규 라인 투자와 공정 전환 일정에 따라 수요가 집중되는 시장으로 평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소모성 부품은 신규 장비뿐 아니라 생산 지속에 따른 교체·재생 수요를 포함하므로 장비시장보다 변동성이 낮으나, 세계 장비투자 감소가 지속될 경우 신규 부품 공급 확대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전방시장에서는 액정표시장치 중심에서 OLED 중심으로 제품구성이 이동하고 있다. 세계 AMOLED (Active-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시장은 2026년 483억 달러에서 2030년 598억 달러로 증가하는 반면, 액정표시장치 시장은 같은 기간 764억 달러에서 739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OLED는 액정표시장치와 증착·봉지·식각공정의 구성과 공정조건이 다르므로, 부품업체에는 고온·플라즈마 환경에 적합한 소재와 코팅, 대면적 정밀가공 및 파티클 저감기술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국가별 경쟁구조에서 중국의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금액 기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020년 41.3%에서 2025년 55.9%로 상승했으나, 한국은 같은 기간 33.3%에서 28.9%로 하락했다. 중국 패널업체의 생산능력 확대는 현지 장비·부품 공급망의 성장과 가격경쟁 심화를 유발하는 한편, 국내 부품업체에는 중국 패널·장비업체 대상의 매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현지 공급업체 우선구매, 기술 내재화 및 가격 인하 압력이 병행될 수 있어 해외 고객 다변화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 환경은 기존 OLED 소재·부품·장비의 실증 인프라 구축에서 핵심기술 개발과 연구개발·실증·양산의 전주기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산업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통해 2026~2030년 고성능·고화질 OLED 핵심기술 개발에 국비 365억 원을 투입하고, 2025~2032년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에 국비 3,47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 아산에는 같은 기간 국비 1,106억 원을 투입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의 전 공정 실증과 기업 상용화를 지원하는 스마트모듈러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2026년 7월 발표한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전략에는 첨단디스플레이연구원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실증센터를 조성해 연구개발에서 실증과 양산으로 이어지는 혁신 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동사의 기회 요인은 대면적 OLED 장비에 대응하는 정밀가공과 평면도 관리, 플라즈마 내구성을 높이는 고밀도 용사·양극산화 기술, 파티클 저감 세정기술 및 기존 부품의 재생 수요 확대이다. 반면 디스플레이 장비시장의 높은 투자주기 변동성, 국내 패널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 중국 부품업체의 기술 고도화와 가격경쟁, 고객별 장기 인증 및 원재료 가격 변동은 주요 위험요인이다.

[그림 1] 국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부품 시장

[그림 2] 글로벌 디스플레이 장비 CAPEX 투자



자료: TDB 시장정보, Counterpoint Research,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정밀가공·표면처리·온도제어·재생기술을 기반으로 부품의 공정 안정성과 수명 향상에 대응

동사는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장비용 대형 알루미늄 부품 대상으로 미세홀·평면도 정밀가공, 양극산화·용사 코팅, 서셉터의 온도·지지 균일성 제어, 세정·연마·재생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스와 플라즈마의 균일한 분포, 부식·파티클·아킹 억제 및 부품 수명 연장에 대응하고 있다. 연구개발은 생산현장의 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디스플레이용 상부전극과 디퓨저의 표면처리에서 고단 적층 반도체용 샤워헤드 및 OLED 식각장비용 고밀도 용사 상부전극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서셉터와 샤워헤드의 구조, 온도·가스 균일성, 코팅·연마 및 세정·재생기술 등 양산부품의 성능과 생산성을 개선하는 제조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핵심 보유기술 및 특징점

동사의 기술 경쟁력은 디스플레이·반도체 제조장비 내부에서 사용되는 정밀부품을 고객의 공정조건에 맞춰 제작하고, 표면처리와 세정·재생까지 연계하는 능력에 기반한다. 이들 부품은 고온, 진공, 플라즈마 및 부식성 가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므로 미세한 가공 오차나 표면 손상도 제품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형 알루미늄 정밀가공과 가스 흐름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상부전극, 디퓨저 및 샤워헤드는 공정가스와 플라즈마를 넓은 기관 전체에 균일하게 전달하는 부품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 알루미늄판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미세한 구멍을 정확한 크기와 간격으로 가공하고, 부품 표면을 평평하게 유지해야 한다. 구멍의 위치나 부품의 평탄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기관 위치별로 식각 또는 증착 정도가 달라져 제품 품질과 생산수율이 저하될 수 있다. 동사는 미세홀의 크기·배열과 대형 부품의 평면도를 함께 관리함으로써 공정가스가 균일하게 분사되도록 하는 정밀가공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플라즈마와 부식성 가스로부터 부품을 보호하는 표면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양극산화(Anodizing)는 알루미늄 표면에 단단한 보호막을 형성하는 기술이며, 용사는 내식성과 내열성을 가진 소재를 부품 표면에 분사해 피막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러한 보호막은 장비 부품의 부식을 줄이고 전기가 비정상적으로 방전되는 아킹(Arcing)과 미세 오염물질인 파티클의 발생을 억제한다. 동사는 양극산화뿐 아니라 코팅층의 미세한 틈을 막는 고압 증기 봉공처리와 여러 소재를 조합한 고밀도 용사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플라즈마 강도가 높은 OLED 및 반도체 공정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기관의 온도와 지지 상태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서셉터 설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서셉터는 디스플레이 기관이나 반도체 웨이퍼를 받치고 일정한 온도로 가열하는 받침대 역할을 한다. 넓은 기관에서 중앙부와 가장자리의 온도가 달라지면 증착되는 막의 두께와 품질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동사는 보조 가열장치와 냉각구조를 이용해 온도 편차를 줄이고, 기관이 안정적으로 놓이고 분리될 수 있도록 지지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또한 기관 가장자리에서 막이 형성되지 않는 구간을 줄이는 구조를 개발해 공정 균일성과 기관 활용도를 높이는 데 대응하고 있다.

사용한 부품을 세정·연마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장비 부품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표면에 공정 부산물이 쌓이고 보호막이 손상되므로, 부품 자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염물과 노후 피막을 제거해야 한다. 동사는 물리적 세정, 산성 용액 처리 및 초순수 세척을 조합해 플라즈마 보호피막을 세정하는 기술과 알루미늄 부품의 표면을 단계적으로 연마·복원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세정한 부품에는 양극산화나 용사 코팅을 다시 적용할 수 있어 기존 부품의 수명 연장과 유지·보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다.

■ 연구개발 역량

동사의 연구개발은 범용 부품의 생산능력 확대보다 공정 균일성 향상, 파티클 저감, 부품 수명 연장 및 차세대 공정 대응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생산현장과 연계된 공정기술을 축적해 왔으며, 제품개발, 양극산화 개발, 설계개발 및 정부과제 수행 기능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연구개발 방향은 디스플레이 장비부품의 표면 안정성 개선에서 반도체 및 OLED용 고정밀 부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초기에는 8세대 디스플레이 식각장비용 상부전극의 파티클을 줄이는 친환경 표면처리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후 CVD 공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디퓨저 표면처리 기술로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는 대형 디스플레이 부품에서 요구되는 내식성과 표면 품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로 평가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100단 이상 3차원 낸드플래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고정밀 샤워헤드를 개발하였다. 반도체 적층 수가 증가할수록 여러 층에 막을 균일하게 형성해야 하므로 가스 흐름과 플라즈마 분포를 더욱 정밀하게 제어해야 한다. 해당 연구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축적한 미세홀 가공, 평면도 관리 및 세정기술을 반도체 공정으로 확장한 사례로, 동사의 연구개발이 인접 고부가가치 시장 진입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는 2025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OLED 식각장비용 분리형 하이브리드 상부전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과제는 고압 증기 봉공처리와 여러 소재를 조합한 고밀도 용사기술을 적용해 플라즈마 내구성과 표면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기존 양극산화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공정환경에 용사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지식재산권 및 인증 현황

동사의 특허는 장비부품의 구조 설계, 온도·가스 흐름의 균일성 제어, 표면처리 및 세정·재생기술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셉터 분야에서는 기관 중앙부와 가장자리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가열·냉각구조, 기관을 안정적으로 지지·분리하는 구조 및 가장자리의 비증착 구간을 줄이는 기술을 권리화하고 있다. 샤워헤드 분야에서는 조립 안정성을 높이는 체결구조와 공정가스를 기관 전면에 고르게 분사하는 구조를 보호하고 있다. 이는 동사의 지식재산권이 단순한 부품 외형보다 증착 균일성, 기관 취급 안정성 및 공정 생산성을 개선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표면처리 분야에서는 서셉터의 표면 거칠기를 일정하게 형성하는 기술, 알루미늄 백킹플레이트의 단계별 연마방법, OLED 메탈마스크 코팅방법, 반도체 챔버 부품의 원자층증착 및 플라즈마 보호피막 세정방법을 권리화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 범위는 신규 부품의 제작뿐 아니라 사용 부품의 표면 복원과 재생공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주력 장비부품의 성능 개선과 사용수명 연장을 지원하는 제조기술 중심의 지식재산 전략을 나타내지만, 실제 경쟁력은 특허기술의 양산 적용 여부와 고객 공정에서의 성능 검증, 경쟁사의 대체기술 보유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가 보유한 상표권은 ‘G-COATING’ 및 ‘GTS-COATING’ 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35류와 제37류에는 회사명과 로고를 활용한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다. 특히 코팅 관련 상표는 동사가 표면처리 기술을 독립적인 기술·서비스 브랜드로 관리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사는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인 ISO 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 45001을 유지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환경관리 우수기업, 스마트공장 인증을 취득해 생산정보와 공정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밀부품 사업에 필요한 품질관리, 환경·안전관리 및 기술개발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 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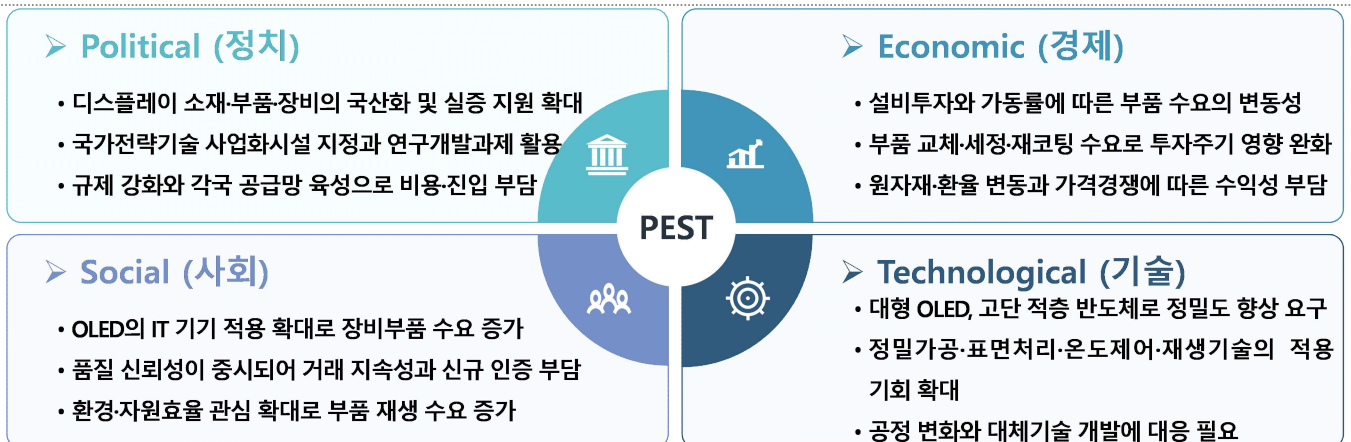
정부 정책은 O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실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과 혁신공정센터는 중소 부품업체가 양산과 유사한 환경에서 제품을 시험하고 고객 인증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동사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지정과 정부 기술개발과제 참여를 통해 이러한 정책환경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양극산화·용사·세정공정은 화학물질, 폐기물 및 대기오염 관련 규제를 적용받아 환경·안전설비 투자와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생산국의 자국 공급망 육성정책도 해외시장 진입에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시장은 패널업체의 신규 생산라인 투자와 공정 전환 시점에 따라 수요가 크게 변동하는 순환적 특성을 가진다. 동사는 디스플레이 장비부품 매출 비중이 높아 OLED 신규 라인 투자와 기존 라인의 가동률에 영향을 받으며, 장비투자 축소나 투자 지연은 신규 부품 수요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부전극, 디퓨저 및 서셉터는 사용 과정에서 마모와 표면 열화가 발생하므로 기존 라인의 세정·재코팅·교체 수요가 투자 변동성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 알루미늄 가격과 환율, 에너지·가공비 상승 및 중국 업체와 가격경쟁은 수익성 부담요인이며, 고객 다변화와 반도체 부품 및 재생사업 확대가 경기변동 위험을 낮추는 주요 과제이다.

스마트폰 중심이던 OLED 적용 범위가 태블릿, 노트북 및 모니터 등 IT 기기로 확대되면서 장비부품에도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가 화면 품질과 제품 신뢰성을 중시할수록 패널업체는 생산수율을 높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가스·온도 분포의 균일성과 파티클 억제 성능을 갖춘 부품의 중요성도 커진다.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손실이 큰 특성상 검증된 공급업체와 거래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은 동사에 기회요인이지만, 신규 고객 확보에는 긴 인증기간이 필요하다. 환경과 자원효율에 대한 관심 확대는 사용 부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재생사업에 긍정적이나, 작업장 안전과 환경관리 수준에 대한 요구도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디스플레이의 대형화와 OLED 공정 전환, 반도체의 고단 적층화는 장비부품에 높은 가공 정밀도와 내구성을 요구한다. 8.6세대 정보기술용 OLED 라인에서는 대형 부품의 평면도와 온도·가스 분포 제어가 중요하며, 고단 적층형 낸드플래시 공정에서는 샤워헤드의 미세홀 배열, 정밀용접 및 세정 수준이 증착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동사의 대형 알루미늄 정밀가공, 양극산화, 용사 코팅, 서셉터 온도제어 및 재생기술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신규 기술은 고객 장비에서 장기 신뢰성과 반복생산 안정성을 검증해야 하며, 공정 변화와 경쟁사의 대체기술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고객 인증이 요구된다.

[그림 3] PEST 분석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사업 확장 이후 수익성 및 재무구조 개선

동사의 연결 매출액은 2023년 352.3억 원, 2024년 3,574.4억 원, 2025년 4,830.3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연결범위 확대와 종속회사 실적 반영이 외형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수익성은 영업이익이 2023년 36.5억 원에서 2024년 138.2억 원, 2025년 258.4억 원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2025년 5.3%로 개선되며 이익창출력이 강화되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연결 매출액 2,307.1억 원, 영업이익 118.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다소 둔화되었으나, 별도 기준 반도체 장비부품 매출은 회복세를 나타냈다. 재무 안정성은 2025년 기준 부채비율 67.4%에서 2026년 상반기 기준 70.9%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자본 규모가 4,256.7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 연결범위 확대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 지속

동사의 3개년 연결 매출액은 2023년 352.3억 원에서 2024년 3,574.4억 원, 2025년 4,830.3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2024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도 35.1% 성장하였다. 2024년 사업결합 및 연결범위 확대효과가 반영되면서 연결 기준 외형이 크게 확대되었다.

품목별 매출실적을 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장비부품은 2023년 225.5억 원에서 2024년 248.4억 원으로 10.2% 증가한 데 이어 2025년에는 256.1억 원으로 3.1% 증가하며 3개년 연속 성장세를 나타냈다. 반면 반도체 장비부품은 2023년 126.6억 원에서 2024년 90.5억 원으로 28.5%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97.3억 원으로 7.5% 증가하며 일부 회복하였다. 기타 매출은 2023년 0.2억 원, 2024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5년에는 7.3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5년 매출 확대는 디스플레이 장비부품의 안정적인 성장과 반도체 장비부품의 반등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상반기 연결 매출은 2,307.1억 원을 기록하였고, 별도 기준으로는 디스플레이 장비부품이 129.4억 원, 반도체 장비부품이 69.9억 원을 기록해 반도체 부문의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최근 3개년 디스플레이 장비부품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에 반도체 부문의 회복세가 더해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현재 흐름이 유지될 경우 본업 중심의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영업이익 증가와 수익성 회복 흐름

동사의 3개년 영업이익은 2023년 36.5억 원에서 2024년 138.2억 원, 2025년 258.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영업이익률은 각각 10.4%, 3.9%, 5.3%로 나타났다. 2024년 영업이익률 하락은 연결 외형의 급격한 확대와 함께 원가구조가 변화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7.0% 증가하며 매출 증가율을 상회하였고, 영업이익률도 1.4%p 개선되면서 연결 수익성의 회복 흐름이 나타났다. 매출원가율은 2023년 74.0%에서 2024년 83.7%로 상승한 뒤 2025년 80.8%로 낮아졌다. 반면 판관비율은 2023년 15.6%, 2024년 12.5%, 2025년 13.9%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5년에는 판관비 부담이 다소 높아졌으나 매출총이익이 928.7억 원으로 전년 583.8억 원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확대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2025년 수익성 개선은 외형 확대와 함께 매출원가율이 하락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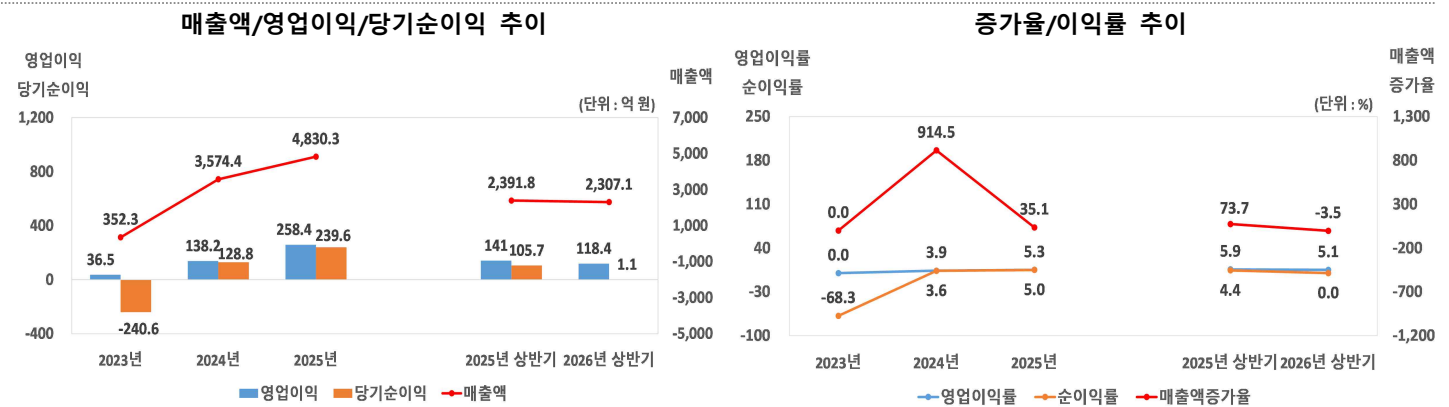
동사의 3개년 당기순이익은 2023년 -240.6억 원에서 2024년 128.8억 원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25년에는 239.6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당기순이익률도 -68.3%에서 3.6%, 5.0%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2023년에는

관계기업지분손실 등 영업외손익의 영향이 컸던 만큼 연도별 순이익 변동성은 영업실적만이 아닌, 비정상적 손실이 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관련 기타손익이 완화되며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유지하였다.

2026년 상반기에는 연결 영업이익이 11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1.1억 원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2025년 영업이익이 크게 확대되는 등 최근 3개년 전반의 수익성은 개선된 만큼, 하반기 매출 확대와 원가 부담 완화가 병행될 경우 수익성 회복 여력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자산 규모 확대와 부채비율 안정화

동사의 3개년 자산총계는 2023년 2,572.3억 원에서 2024년 6,161.1억 원, 2025년 6,799.3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2024년 이후 연결범위 확대와 사업결합의 영향으로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관계기업투자 및 운전자산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2025년 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634.1억 원으로 2024년 말 511.9억 원 대비 증가하였으며, 2025년 영업활동현금흐름도 237.1억 원의 유입을 기록하였다. 유동비율은 3년간 149.7%, 195.3%, 91.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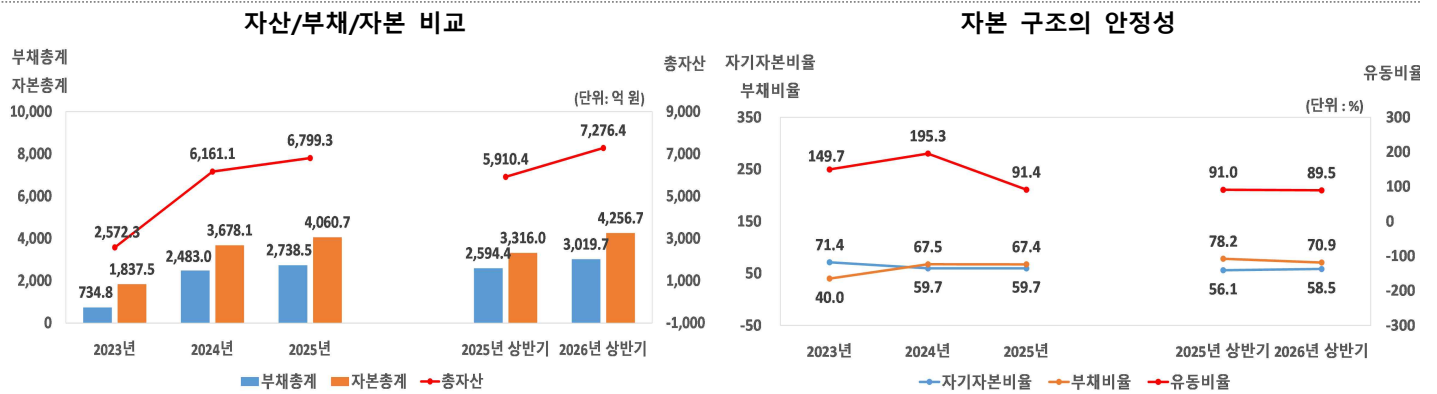
부채총계는 2023년 734.8억 원에서 2024년 2,483.0억 원, 2025년 2,738.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부채비율은 2023년 40.0%에서 2024년 67.5%로 상승한 뒤 2025년 67.4%로 낮아졌다. 2024년 이후 차입금과 전환사채 등 금융부채 규모가 증가했으나, 2025년에는 자본 증가 폭이 부채 증가 폭을 상회하면서 부채비율이 개선되었다.

자본총계는 2023년 1,837.5억 원, 2024년 3,678.1억 원, 2025년 4,060.7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71.4%, 59.7%, 59.7%로 나타났다. 지배기업 소유주지분도 2025년 말 1,447.1억 원으로 증가하여 연결에 따른 외형 확대에 자본완충력이 형성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당기순이익 누적과 기타자본변동이 자본 증가에 기여하였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연결 자산은 7,276.4억 원, 자본은 4,256.7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부채비율은 70.9%를 기록하였다. 유동비율은 89.5%, 자기자본비율은 58.5%를 기록하였다. 최근 자본 규모가 지속 확대되며 일정 수준의 재무완충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영업현금창출력이 회복될 경우 재무구조의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매출액	352.3	3,574.4	4,830.3	2,391.8	2,307.1
매출액증가율(%)	0.0	914.5	35.1	73.7	-3.5
영업이익	36.5	138.2	258.4	141.0	118.4
영업이익률(%)	10.4	3.9	5.3	5.9	5.1
순이익	-240.6	128.8	239.6	105.7	1.1
순이익률(%)	-68.3	3.6	5.0	4.4	0.0
부채총계	734.8	2,483.0	2,738.5	2,594.4	3,019.7
자본총계	1,837.5	3,678.1	4,060.7	3,316.0	4,256.7
총자산	2,572.3	6,161.1	6,799.3	5,910.4	7,276.4
유동비율(%)	149.7	195.3	91.4	91.0	89.5
부채비율(%)	40.0	67.5	67.4	78.2	70.9
자기자본비율(%)	71.4	59.7	59.7	56.1	58.5
영업현금흐름	29.1	243.6	237.1	66.6	-230.2
투자현금흐름	145.0	144.8	-244.0	-265.5	-290.3
재무현금흐름	72.2	-164.9	130.7	125.5	389.0
기말현금	290.0	511.9	634.1	435.8	503.8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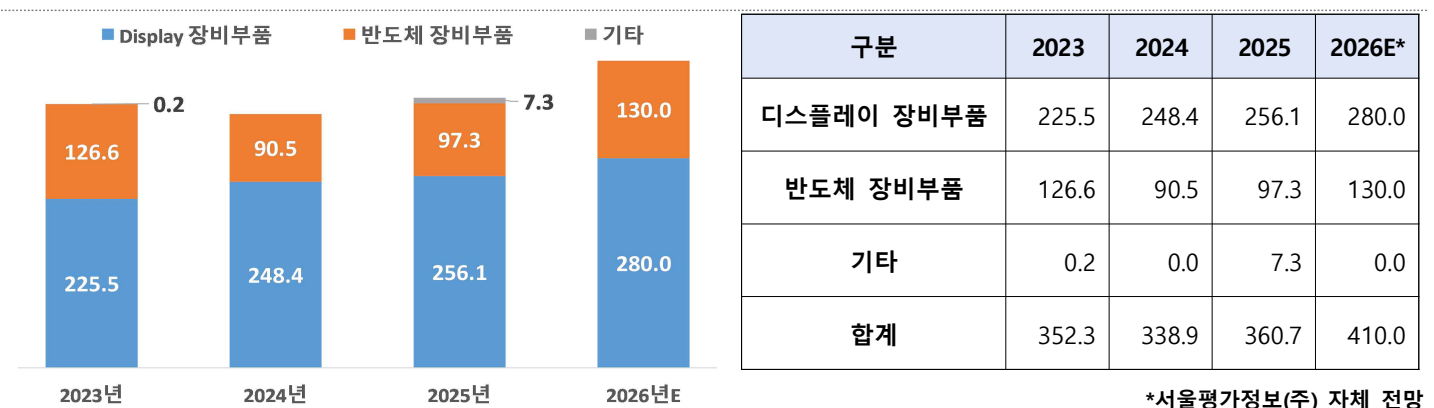
디스플레이 장비부품 매출은 2023년 225.5억 원에서 2024년 248.4억 원, 2025년 256.1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한 28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동사는 액정표시장치와 OLED의 식각·증착·노광공정에 사용되는 상·하부전극, 서셉터, 디퓨저, 노광기 척 및 마스크 프레임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고온·진공·플라즈마 환경에서 사용되면서 마모와 표면 열화가 발생하므로 신규 라인용 부품뿐 아니라 기존 생산라인의 교체·세정·재양극산화 및 재코팅 수요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존 라인의 유지·보수 수요가 안정적인 매출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향후 추가 성장은 대형 OLED 라인용 부품의 고객 인증과 양산 공급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도체 장비부품 매출은 2023년 126.6억 원에서 2024년 90.5억 원으로 감소한 후 2025년 97.3억 원으로 회복했으며, 2026년에는 130.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제품은 CVD 공정에서 가스를 균일하게 분사하는 샤워헤드와 식각공정용 진공 챔버로, 동사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축적한 미세홀 가공, 평면도 관리, 정밀용접, 표면처리 및 세정기술을 반도체 부품에 적용하고 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 달성 시, 반도체 부문의 매출 비중은 2025년 27.0%에서 2026년 31.7%로 상승해 디스플레이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6년 전체 매출 증가가 반도체 부문의 성장에 의존도가 큰 편으로 고객사의 설비투자, 장비 발주 및 제품 인증 일정이 지연되면 예상 실적과의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기타 매출은 2025년 7.3억 원에서 2026년 0.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속적인 매출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체 매출은 2023년 352.3억 원에서 2024년 338.9억 원으로 감소한 후 2025년 360.7억 원으로 회복했으며,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한 41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매출의 소멸에도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부품의 합산 매출이 2025년 353.4억 원에서 2026년 410.0억 원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핵심 제조사업을 중심으로 외형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고객사의 가동률과 정비계획에 따라 수시로 발주가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 설비투자의 주기적 변동, 알루미늄 가격과 환율 및 가공비 변화에 의해 실적이 변동될 수 있고, 매출 증가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림 6]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별도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OLED·반도체용 정밀부품의 기술 및 생산 기반을 고도화하며 성장영역 확대 중

동사는 기존 사업구조를 유지하며 OLED·반도체용 고부가 부품 개발과 생산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고밀도 용사·봉공처리를 적용한 OLED 식각장비용 상부전극 개발, 플라즈마 보호피막 세정기술의 특허 등록 및 스마트공장 인증을 통해 표면처리·재생기술과 공정관리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무상감자와 최대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통해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일부 계열 지분을 재배치하였다. 향후 디스플레이 부문은 기존 생산라인의 교체·재생 수요와 8.6세대 정보기술용 OLED 투자가, 반도체 부문은 인공지능·고성능 메모리 투자와 낸드플래시 적층 고도화가 성장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 최근 변동사항

연구개발은 디스플레이용 범용 부품의 성능 개선 중심에서 OLED와 반도체용 고부가 부품으로 개발 범위가 구체화되었다. 2025년에는 고압 증기 봉공처리와 여러 소재를 조합한 고밀도 용사기술을 적용한 OLED 식각장비용 분리형 하이브리드 상부전극 개발과제가 추가되었다. 기존 양극산화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고강도 플라즈마 환경까지 표면처리 기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플라즈마 보호피막 세정방법도 2026년 등록특허로 전환되어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신규 부품 제작에서 사용 부품의 세정·재생까지 확장되었다.

생산관리에서는 2025년 스마트공장 인증을 취득하였다. 동사는 고객별 사양에 따라 제품을 제작하고 발주 시점도 일정하지 않아 표준화된 대량생산보다 다품종 주문생산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스마트공장 체계는 생산정보의 실시간 관리, 공정이력 추적, 품질 편차 축소 및 납기 대응력 개선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취득만으로 생산성이 개선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효과는 설비 가동률과 불량률, 납기 준수 수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년에는 자본구조와 지배구조의 변화가 확대되었다. 동사는 보통주 3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완료한 후 최대주주인 제이에스아이홀딩스를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조달자금은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와 운영자금에 사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최대주주 지분율과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상승하였다. 경영권 안정성과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제3자배정 증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낮추는 요인이므로 설비투자의 집행 내용과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결 지배구조에서는 이에셋글로벌에 대한 직접 보유지분을 연결회사인 머큐리로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이에셋글로벌은 동사의 직접 종속기업에서는 제외됐지만, 머큐리를 통한 간접 종속기업으로 연결범위에는 계속 포함되어 있다. 이는 투자사업을 제조업 중심의 지배회사에서 하위 계열회사로 재배치한 내부 구조조정으로 볼 수 있으며, 동사 별도 제조사업의 집중도를 높이는 측면이 있다. 다만 파워넷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유통·환경설비 및 투자 관련 간접 종속기업이 다수 편입되어 있어 연결 실적과 자금 흐름의 복잡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전망

디스플레이 부문은 기존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교체·세정·재코팅 수요를 기반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8.6세대 정보기술용 OLED 라인의 가동이 신규 성장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6년 7월 8.6세대 OLED 라인의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했으며, 대면적 공정의 수율 안정화와 적용제품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기판이 대형화될수록 전극·서셉터·디퓨저의 평면도와 온도 및 가스의 분포를 균일하게

관리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므로 동사의 정밀가공과 표면처리 역량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다만 실제 수혜는 해당 라인의 장비 구성, 공급업체 선정 및 부품 인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초기 가동률과 최종 정보기술 제품의 수요 변동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구축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도 OLED용 신규 부품 개발과 실증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 센터는 양산과 유사한 OLED 공정환경에서 소재·부품·장비를 시험할 수 있어 자체 실증설비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 부품업체의 개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동사가 추진하는 고밀도 용사 상부전극과 세정·재생기술도 이러한 실증 기반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공 실증과 고객사 양산 인증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술개발 완료와 곧바로 공급계약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도체 부문은 샤워헤드와 식각용 진공 챔버를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와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를 견인하고 있으며, SEMI(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ternational,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는 2026년과 2027년 세계 300mm 웨퍼 장비투자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3차원 낸드플래시의 적층 고도화가 이어지면 가스 분사 균일성, 미세홀 정밀도, 고내식 코팅 및 파티클 저감 성능을 갖춘 공정 부품의 중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동사의 반도체 시설투자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해석되지만, 수요 확대가 실제 공급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고객별 품질인증과 반복생산 안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양극산화 중심의 기존 표면처리에서 고밀도 용사·봉공처리·정밀세정으로 기술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 과제다. 현재 진행 중인 OLED 식각장비용 분리형 하이브리드 상부전극 개발은 플라즈마 내구성과 부품 재생성을 높이는 방향이며, 성과가 확보되면 신규 제작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 반도체 샤워헤드의 홀 배열 개선과 용사층 세정기술도 제품 성능뿐 아니라 사용수명과 총사용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비 규모와 고객 인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다수의 신제품을 상용화하기보다 핵심 제품별 인증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 실적의 안정성은 디스플레이 부문의 반복적인 교체·재생 수요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부문의 고객과 품목을 얼마나 확대하는지에 달려 있다. 신규 장비투자는 전방업체의 투자주기에 민감하지만 가동 중인 생산라인에서는 부품의 마모와 코팅 열화에 따라 유지·보수 수요가 지속된다. 동사가 신규 부품 제작과 세정·재코팅을 연계하면 투자주기 변동을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중국 부품업체의 기술 향상과 가격경쟁, 알루미늄 가격 및 환율 변동은 수익성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지트(03609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10.01)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위지트	X	X	X